

2023년 11-2

KIET 경제·산업동향

2023년 11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 례 〉

〈 요 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 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수요위기를 넘어 공급위기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3년 11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日 3분기 성장률 전기비 -0.5%, 유로존 -0.1% 성장

- 미국은 10월 경제지표들이 동반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도 높은 인플레이 수준으로 연준의 고금리 지속 기간에 관심이 고조
- 일본은 3분기중 내수 부진과 수출 약세 등의 영향으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전기비 -0.5%)을 기록하고, 유로존 역시 역대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마이너스 성장 여파로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0.1%)
- 중국은 10월 내수 지표들의 완만한 흐름과 수출 감소세 지속이 나타난 가운데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지방정부 재정 지원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
- 달러화는 무디스의 美 신용등급 전망 하향(11.10일)에도 美 물가지표 둔화와 실물지표 약세 등으로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약세
- 유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주요국 실물경기 약세에 따른 원유 수요 둔화 우려와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약세가 지속

□ 국내경기 : 9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1%, 소비 소폭 증가·투자 확대

- 9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전월비 1.8%)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소폭 증가세(0.4%)가 이어지면서 2개월 연속 증가(1.1%)
 - 소매판매는 비내구재(2.3%) 판매가 확대되면서 전월비 0.2%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기계류(7.3%)가 운송장비(12.6%)가 동반 증가하면서 8.7% 증가

□ 금융 : 10월 기업대출 둔화 및 가계대출 확대, 11월 중순(11월 11일 ~ 24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하락

- 10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의 증가세 속에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된 반면,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기타대출이 전월과 달리 증가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美 국채금리의 하락세와 국내외 인플레이 우려 완화 및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 등으로 9월초 이후 최저치인 3.6%대로 하락
- 원/달러 환율은 무디스의 美 신용등급 전망 하향과 위안화 약세 등으로 상승한 이후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와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하락세

□ 산업별 동향 : 9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3.0%, 서비스업생산 +2.2%

- 제조업생산은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하고, 자동차 등에서 소폭 증가한 반면, 반도체와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3.0% 증가
 - 제조업ICT와 중공업 생산은 증가하고, 경공업 생산은 감소폭이 축소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등의 업종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와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2.2% 증가

□ 고용 : 10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지난 10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에,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증가 전환되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3개월 연속 상승(1.1% → 1.2%)

□ 수출입 : 10월 수출 +5.1%, 수입 -9.7%, 무역수지 16억 달러 흑자

- 지난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5.1% 증가한 551억 달러, 수입이 9.7% 감소한 535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품목별로는 자동차·일반기계·가전·선박·디스플레이 등에서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다,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가 둔화되는 한편, 지역별로는 중국·EU·CIS 등지를 제외한 다수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이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

1. 해외경제

□ 미국 : 10월 경제지표 동반 약세, 연준의 고금리 지속 기간에 관심 고조

○ 10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체감지표들과 선행지수의 동반 하락이 나타나면서 실물경기 여건의 약세를 반영. 연준의 금리인상 마무리 전망에도 높은 인플레이 수준으로 연준의 고금리 지속 기간에 주목

- 산업생산이 광업(전월비 0.4%)을 제외한 제조업(-0.7%)과 유틸리티(-1.6%) 부문의 동반 감소 여파로 4개월 만에 감소(0.3%)하고, 소매판매도 주유소(-0.3%)와 자동차·부품(-1.0%) 등의 판매 감소로 7개월 만에 감소(-0.1%)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생산, 수주, 고용 등의 감소 여파로 기준치(50)를 여전히 하회하면서 4개월 만에 하락하고, 소비자신뢰지수도 현재 평가지수(147.1)와 미래 기대지수(73.7)의 동반 하락으로 5개월 만에 최저
-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증가 규모가 전월과 달리 축소(8월 22.7만 개 → 9월 33.7만 개)되고, 경기선행지수도 2022년 4월부터 19개월 연속 하락세
-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인플레이가 연준의 목표치(2.0%)를 여전히 상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금리 지속 기간에 주목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5.8	1.9	2.2 (1.7)	2.1 (2.4)	4.9 (2.9)				
산업생산 (IT생산)	4.4 (9.7)	3.4 (2.4)	-0.1 (-0.9)	0.2 (6.7)	0.5 (5.5)	0.9 (2.3)	0.0 (1.6)	0.1 (1.4)	-0.6 (1.4)
내구재수주	18.4	8.3	-0.1	5.4	-1.1	-5.6	-0.1	4.0	-5.4
소매판매	18.2	9.7	1.1	0.1	1.7	0.6	0.7	0.9	-0.1
소비자물가	4.7	8.0	0.9	0.7	0.9	0.2	0.6	0.4	0.0
실업률(%)	5.4	3.6	3.5	3.6	3.7	3.5	3.8	3.8	3.9
무역수지(10억US\$)	-841.6	-951.2	-201.8	-203.5	-184.9	-64.7	-58.7	-61.5	-
ISM 제조업지수 ¹⁾	60.6	53.5	47.1	46.7	47.7	46.4	47.6	49.0	46.7
소비자신뢰지수 ²⁾	112.0	104.5	104.5	105.4	109.0	114.0	108.7	104.3	102.6
경기선행지수 ³⁾	113.8	114.8	109.4	106.7	105.3	105.8	105.4	104.7	103.9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9월 실물지표 반등, 3분기 성장률 3분기 만에 마이너스(-0.5%)

- 9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무역수지가 수출의 증가(4.3%) 전환과 수입의 대폭 감소(-16.4%) 영향으로 3개월 만에 흑자. 지난 3분기중 소비 정체와 투자 감소 등 내수 부진 및 외수(수출) 약세 등의 영향으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전기비 -0.5%, 전년동기비 기준 1.2%)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2	0.9	0.9	1.1	-0.5				
광공업생산	5.8	0.0	-1.8	1.4	-1.2	2.4	-1.8	-0.7	0.5
민간기계수주	6.0	5.5	2.6	-3.2	-1.8	2.7	-1.1	-0.5	1.4
소매판매	2.0	2.6	2.5	0.5	2.5	-0.6	2.2	0.2	0.4
소비자물가	-0.2	2.5	0.5	0.7	0.8	0.2	0.4	0.2	0.3
실업률(%)	2.8	2.6	2.6	2.6	2.7	2.5	2.7	2.7	2.6
무역수지(10억엔)	-1,784	-19,966	-5,185	-1,779	-935	39	-64	-943	72
경기선행지수 ¹⁾	114.2	112.0	108.3	108.6	108.7	108.8	108.2	109.2	108.7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20년=100.

□ 중국 : 10월 내수 완만·수출 감소, 中 정부 적극적 재정정책 지속 시행

- 10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이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에, 수출이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 내수 약세 및 물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 우려 속에서 中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184조원)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 추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실질GDP)	9.1	3.0	4.5	6.3	4.9				
산업생산	9.3	3.4	3.2	4.5	4.2	3.7	4.5	4.5	4.6
고정투자(누계기준)	4.9	5.1	5.1	3.8	3.1	3.4	3.2	3.1	2.9
소매판매	12.4	-0.8	7.1	11.4	4.2	2.5	4.6	5.5	7.6
소비자물가	0.9	2.0	1.3	0.1	-0.1	-0.3	0.1	0.0	-0.2
수출(달러화기준)	29.6	5.6	-1.7	-4.6	-9.6	-14.1	-8.4	-6.1	-6.4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9월 실물지표 감소, 3분기 역내 마이너스 성장 기록(-0.1%)

- 9월 역내 실물지표들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여 만에 최저.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마이너스 성장(-0.1%) 여파로 3분기 성장률이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 마이너스(전기비 -0.1%, 전년동기비 0.1%)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실질GDP)	5.9	3.4	0.0	0.2	-0.1				
산업생산	8.8	2.2	-1.2	-1.2	-1.2	0.1	-1.3	0.6	-1.1
소매판매	5.1	0.9	-0.1	0.0	-0.5	0.0	-0.1	-0.7	-0.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6	8.4	8.0	6.2	5.0	5.5	5.3	5.2	4.3
무역수지(10억유로)	97.9	-340.5	-7.2	1.5	23.8	8.1	3.5	11.2	9.2
경제체감지수 ¹⁾	110.7	101.9	99.2	96.9	93.9	95.3	94.6	93.7	93.4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약세 & 유가 하락 지속

- 달러화는 11월 들어 美 고용지표들의 약세와 美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약세를 보이고, 무디스의 美 신용등급 전망 하향(11.10일)에도 美 물가지표 둔화와 실물지표 약세 등으로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추가 약세
- 유가는 11월 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美 원유재고 증가와 글로벌 원유 수요 불안 등으로 약세를 보이고, 주요국 실물경기 약세에 따른 원유 수요 둔화 우려와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약세가 지속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3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24일
엔/달러	136.17	132.86	136.30	139.34	144.31	142.29	145.54	149.37	151.68	149.44
달러/유로	1.0576	1.0839	1.1019	1.0689	1.0909	1.0997	1.0843	1.0573	1.0575	1.0939
미 국채 (10년만기)	3.92	3.47	3.42	3.64	3.84	3.96	4.11	4.57	4.93	4.47
WTI유	77.1	75.7	76.8	68.1	70.6	81.8	83.6	90.8	81.0	76.8
두바이유	81.3	76.8	78.9	72.1	76.1	85.6	87.2	92.9	86.7	82.5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9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1%, 소비 소폭 증가·투자 확대

○ 9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전월비 1.8%)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소폭 증가세(0.4%)가 이어지면서 2개월 연속 증가(1.1%)

- 광공업생산은 자동차(-7.5%) 생산이 감소한 반면, 반도체(12.9%)와 기계장비(5.1%) 등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월비 1.8%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1.7%)와 운수·창고(2.2%)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월비 0.4% 증가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GDP성장률	4.3	2.6*	0.9* (0.3*)	0.9* (0.6*)	1.4**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6	4.1*	4.6* (0.6*)	1.6* (-0.1*)	0.3** (0.3**)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3	-0.9*	5.9* (-5.0*)	4.7* (0.5*)	-4.7** (-2.7**)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2.8*	1.9* (1.3*)	1.7* (-0.8**)	4.0** (2.2**)	-	-	-	-
전산업생산지수	5.3	4.6	1.2 (0.7)	-0.5 (0.3)	0.9* 1.2*	0.6 (0.0)	-1.4 (-0.8)	1.3* (2.0*)	2.8* (1.1*)
광공업생산지수	8.2	1.4	-9.7 (-0.9)	-7.6 (3.1)	-2.0 1.9	-6.0 (-1.6)	-8.1 (-2.0)	-0.7* (5.2*)	3.0* (1.8*)
제조업생산지수	8.4	1.4	-10.0 (-0.9)	-7.8 (3.3)	-2.1 1.8	-6.2 (-1.6)	-8.3 (-2.2)	-0.8* (5.4*)	3.0* (1.9*)
서비스업생산지수	5.0	6.7	6.4 (1.2)	2.3 (-0.3)	1.9 0.8	3.0 (0.6)	1.9 (0.3)	1.7* (0.3*)	2.2* (0.4*)
소매판매액지수	5.8	-0.3	-0.4 (1.1)	-0.2 (-0.3)	-2.7 -2.5	1.5 (0.9)	-1.7 (-3.2)	-4.7* (-0.3*)	-1.9* (0.2*)
설비투자지수	9.6	3.3	-0.5 (-8.8)	-1.2 (1.3)	-10.6 -3.5	-2.5 (-1.1)	-11.2 (-8.9)	-14.6* (4.0*)	-5.7* (8.7*)
건설기성(불변)	-6.7	2.7	11.5 (4.6)	8.9 (-0.8)	11.9 2.3	8.8 (-2.2)	10.2 (0.5)	10.8* (3.2*)	14.5* (2.5*)
동행종합지수(2020=100)	103.7	108.2	108.8	110.2	110.1*	110.3	110.0*	110.0*	110.2*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9.4	100.9	99.7	100.2	99.4*	100.1	99.6*	99.4*	99.3*
선행종합지수(2020=100)	106.2	108.7	109.4	109.9	111.4*	110.5	111.1*	111.4*	111.8*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4	100.3	99.0	98.7	99.3*	98.9	99.3*	99.3*	99.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소매판매는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전월비 -2.3%)와 의복 등 준내구재(-2.8%) 판매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3%) 판매가 전월보다 현저히 확대되면서 전월비 기준 증가 전환(-0.3% → 0.2%)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7.3%)와 운송장비(12.6%) 모두 전월보다 현저히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8.7%)하고, 건설기성액(불변)도 건축(-2.7%) 공사의 감소에도 토목(20.0%) 공사의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2.5%)
- 동행종합지수는 수입액과 소매판매액지수 등의 하락에도 광공업생산지수와 건설기성액 등이 상승하면서 4개월 만에 상승(전월비 0.2%)하고, 선행종합지수 역시 건설수주액과 수출입물가비율 등의 하락에도 장단기금리차,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상승세(0.4%)

□ 물가 : 10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0.8%

- 10월 소비자물가는 교통(전월비 1.3%)을 비롯해 주택·수도·전기·연료(0.3%), 식료품·비주류음료(0.2%)와 음식·숙박(0.2%)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기준 0.3% 상승(전년동월비 3.8%, 2023년 3월 이후 최고치)
- 10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전월비 0.2% → -5.5%)한 데다, 공산품 가격의 상승세가 현저히 둔화(0.9% → 0.1%)되고, 서비스 가격 역시 소폭 상승(0.1%)에 그치면서 전월비 0.1% 하락(전년동월비 0.8%)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소비자물가	2.5	5.1	4.7 (1.1)	3.2 (0.6)	3.1 (1.0)	3.3 (0.3)	2.7 (0.0)	2.3 (0.1)	3.4 (1.0)	3.7 (0.6)	3.8 (0.3)
근원물가	1.8	4.1	4.9 (1.3)	4.3 (0.9)	3.9 (0.4)	4.3 (0.4)	4.1 (0.2)	3.9 (-0.1)	3.9 (0.2)	3.8 (0.3)	3.6 (0.4)
생산자물가	6.4	8.4	4.4 (0.1)	0.6 (-0.3)	0.7 (0.7)	0.5 (-0.4)	-0.3 (-0.2)	-0.3 (0.3)	1.0 (0.9)	1.4 (0.5)	0.8* (-0.1*)
근원물가	6.0	6.4	2.6 (0.3)	0.3 (0.1)	0.3 (0.1)	0.1 (-0.3)	-0.4 (-0.3)	-0.4 (0.0)	0.5 (0.5)	0.8 (0.2)	0.7* (0.1*)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10월 기업대출 둔화 및 가계대출 확대

- 지난 10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2023년 9월 +11.3조원 → 10월 +8.1조원, 대기업 +4.3조원, 중소기업 +3.8조원)
 - 대기업 대출은 기존 직접금융조달(회사채 등) 기업의 대출 활용과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보다 상당폭 증가
 -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은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에도 전월말 추석 연휴로 지연된 대출금 상환 등으로 증가폭이 현저히 축소
- 회사채는 은행대출 등 대체 조달수단 활용으로 순상환 규모가 확대
(2023년 9월 -0.8조원 → 10월 -2.3조원)
- CP·단기사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순발행 기조가 지속
(2023년 9월 +2.0조원 → 10월 +2.5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과 달리 소폭 증가
(2023년 9월 +2.9조원 → 10월 +0.6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10월말 잔액
	1~10월	10월	1~10월	10월	1~10월	8월	9월	10월	
■은행 원화대출	82.9	10.3	103.6	13.7	76.1	8.2	11.3	8.1	1,246.4
(대 기 업)	6.2	2.2	37.2	9.3	32.5	2.9	4.9	4.3	248.4
(중소기업)	76.7	8.1	66.4	4.4	43.6	5.2	6.4	3.8	998.0
〈개인사업자〉	33.2	2.6	20.2	0.1	7.5	1.2	0.8	0.5	450.3
■회사채 순발행	17.1	0.2	-5.4	-3.2	-0.3	-1.1	-0.8	-2.3	..
■CP 순발행	6.5	-1.0	18.7	3.1	5.7	-1.8	2.0	2.5	62.2
■주식발행	26.0	1.1	20.6	0.4	7.1	0.5	2.9	0.6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

- 10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과 달리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기타대출이 전월과 달리 증가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2023년 9월 +4.9조원 → 10월 +6.8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자금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월비 증가 규모는 축소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3년 9월 +6.1조원 → 10월 +5.8조원)
- 반면에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월초 연휴 소비자금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
(2023년 9월 -1.3조원 → 10월 +1.0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10월말 잔액
	1~10월	10월	1~10월	10월	1~10월	8월	9월	10월	
은행 가계대출	69.1	5.2	-1.9	-0.7	28.5	6.9	4.9	6.8	1,086.6
■주택담보대출	52.6	4.7	16.0	1.3	40.8	7.0	6.1	5.8	839.6
■기타대출	16.4	0.5	-17.9	-1.9	-12.1	-0.1	-1.3	1.0	245.7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11월 중순(11월 13일 ~ 24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하락

- 국고채(3년) 금리는 11월 들어 美 노동시장의 과열 진정 조짐과 美 국채금리 하락 전환 등으로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국내외 인플레이 우려 완화 및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 등으로 지난 9월초 이후 최저치인 3.6%대로 하락
(11월 13일 3.877% → 11월 24일 3.677%, -0.2%p)
- 원/달러 환율은 11월 초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 전환과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으로 급락하고, 무디스의 美 신용등급 전망 하향과 위안화 약세 등으로 일시 상승한 이후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추가 하락
(11월 13일 1,325.1원 → 11월 24일 1,306.4원, -18.7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1		2022		2023				
	4/4	2/4	3/4	4/4	1/4	2/4	3/4	10월	11.24일
국고채(3년)	1.80	3.55	4.19	3.72	3.27	3.66	3.88	4.09	3.68
회사채(3년, AA-)	2.42	4.36	5.28	5.23	4.07	4.47	4.64	4.91	4.44
CD(91일)	1.29	2.04	3.24	3.98	3.59	3.75	3.83	3.82	3.84
CP(91일)	1.56	2.34	3.30	5.28	4.01	4.02	4.08	4.36	4.36
원/달러	1,188.8	1,298.4	1,430.2	1,264.5	1,301.9	1,317.7	1,336.5	1,350.5	1,306.4
원/100엔	1,030.2	946.5	993.3	953.2	981.4	907.0	901.3	907.0	868.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9월중 전년동월비 +3.0%, 전월비 +1.9%

- 제조업생산이 전자부품(-14.4%)과 기계장비(-8.7%) 등에서 감소하고, 자동차(0.1%) 등에서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반도체(23.7%), 기타운송장비(18.5%), 1차금속(12.5%) 등에서 상당폭 증가함에 따라 3.0% 증가(22.8월 이후 처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2.3%)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중공업(4.1%)도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경공업(-3.3%)에서는 감소폭이 축소
 - 전월비 기준으로는 자동차(-7.5%)와 1차금속(-4.8%) 등을 제외하고, 반도체(12.9%)와 기계장비(5.1%), 전자부품(3.5%), 기타운송장비(1.0), 화학제품(1.1%), 섬유제품(0.1%)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1.9%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1.8)는 반도체,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0.1%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1.8%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3.9%로 전월과 달리 10.4%p 하락 전환하고, 3분기 재고출하 순환도는 재고 증가폭(4.2% → 8.5%,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이 확대된 반면, 출하는 감소폭이 축소(-2.3% → -1.9%)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2%로 전월 수준에서 보합

□ 서비스업생산 : 9월중 전년동월비 +2.2%, 전월비 +0.4%

- 서비스업생산도 도소매(-0.2%)와 숙박·음식점(-1.3%), 정보통신(-3.4%) 등 업종에서 감소하고, 운수·창고(10.1%), 전문·과학·기술서비스(2.2%),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4.2%)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2.2% 증가
 - 전월비로는 정보통신(-0.7%)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0.5%) 등에서 감소한 반면에, 숙박·음식점(2.4%), 운수·창고(2.2%), 도소매(1.7%),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1.0%) 등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4개월 연속 소폭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1.0%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4.1%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0년)	2021	2022	2023						
				1/4	2/4	3/4*	7월	8월*	9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8.2	109.7	99.5	104.6	106.2	103.9	105.7	109.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2	1.4	-9.7	-7.6	-2.0	-8.1	-0.7	3.0	1.8
제조업 (원지수)	9,569.5	108.4	109.9	98.8	105.2	106.5	104.0	105.7	109.7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4	1.4	-10.0	-7.8	-2.1	-8.3	-0.8	3.0	1.9
섬 유	113.4	2.0	-3.5	-7.8	-9.1	-7.2	-9.9	-5.8	-5.6	0.1
화 학	854.2	8.6	-9.9	-20.4	-16.1	-3.1	-7.5	-2.4	0.9	1.1
철 강	496.6	5.2	-8.5	-6.5	-2.6	3.3	-5.6	-0.4	20.8	-5.4
반도체	2,023.8	26.8	7.6	-33.8	-18.6	4.7	-15.0	8.4	23.7	12.9
컴퓨터, 주변장치	32.4	27.5	11.0	0.7	-14.7	-17.3	-42.1	-8.8	8.3	19.8
통신, 방송장비	171.0	23.5	-5.1	17.6	-12.6	-10.2	-11.6	0.7	-18.2	-9.9
의료, 정밀, 광학	217.2	17.8	6.6	-4.3	-13.9	-15.0	-15.6	-14.3	-14.9	5.6
기계, 장비	737.3	12.1	1.1	0.7	-6.5	-12.2	-14.8	-13.0	-8.7	5.1
자동차	987.5	6.3	9.1	21.6	15.4	4.7	6.1	8.2	0.1	-7.5
조 선	66.0	-7.2	20.7	19.6	4.6	9.3	6.2	12.5	9.7	-5.0
- 중 공 업	-	9.9	1.5	-10.7	-7.7	-1.5	-8.3	0.2	4.1	2.3
- 경 공 업	-	1.3	0.4	-5.6	-8.3	-5.8	-8.1	-6.0	-3.3	-0.2
- 제조업ICT	-	19.3	2.2	-30.5	-19.1	-1.4	-16.5	1.3	12.3	9.9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5.0	112.0	111.8	115.2	114.6	114.2	114.0	115.7	-
전년동기비 증감률	-	5.0	6.7	6.4	2.3	1.9	1.9	1.7	2.2	0.4
도소매	193.9	4.3	2.7	2.8	-1.1	-1.9	-1.8	-3.5	-0.2	1.7
운수및창고	78.4	4.2	17.7	17.3	9.5	8.7	8.0	8.1	10.1	2.2
숙박및음식점	44.4	1.9	16.9	16.3	-2.7	-4.7	-7.4	-5.0	-1.3	2.4
정보통신	88.9	12.2	1.7	-1.7	-3.8	-1.6	-0.3	-1.0	-3.4	-0.7
금융및보험	167.4	8.0	8.4	10.7	7.1	4.8	6.9	5.8	1.8	-0.2
부동산	38.7	2.3	8.0	4.1	3.0	2.4	2.9	2.1	2.3	1.1
전문·과학및기술	95.8	2.8	2.0	1.8	2.6	2.4	3.3	1.6	2.2	-0.5
사업시설관리 등	53.6	2.3	5.2	5.6	3.5	3.5	3.2	3.0	4.2	1.0
교 육	73.5	1.5	1.2	1.1	0.2	1.4	1.4	1.0	1.9	0.5
보건및사회복지	111.3	5.1	7.2	5.7	3.5	5.1	3.9	5.7	5.7	0.2
예술·스포츠및여가	17.5	15.4	43.6	20.8	7.0	-2.1	-9.0	-0.7	4.4	-4.2
협회·수리및개인	24.0	1.9	4.4	13.8	5.4	6.2	6.1	7.4	5.3	-1.9
수도·하수및폐기물	12.6	2.3	-4.7	0.6	-1.6	-0.9	-2.8	1.0	-1.0	-2.8
- ICT서비스업	-	6.2	5.5	2.2	0.8	1.9	2.6	2.4	1.0	4.1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5. 고 용

□ 취업자 수 : 10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지난 10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에,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증가 전환되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3개월 연속 상승(1.1% → 1.2%)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감소(-1.7%, 6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증가(-0.2% → 1.0%)하고, SOC·기타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3개월 연속 확대(1.7% → 1.8%)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1.7% → 0.7%)된 반면, 도 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증가세가 7개월 만에 확대(0.9% → 1.1%)
-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부문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5.2% → 5.9%)와 정보통신업(4.7% → 7.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1.6% → 2.6%),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1.2% → 2.8%)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에도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4.2% → 3.7%)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인해 전체 증가율이 전월보다 하락(1.8%)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5%로서 전월과 달리 소폭 하락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 산 업	27,273	28,089	27,767	28,693	28,687	28,812	28,686	28,678	28,698	28,764
전년동기비	1.4	3.0	1.5	1.2	0.9	1.2	0.7	0.9	1.1	1.2
농림·어업	0.9	4.6	-1.6	-0.3	-1.3	-0.8	-2.5	-1.1	-0.2	1.0
제 조 업	-0.2	3.1	-0.8	-1.1	-1.3	-0.2	-0.8	-1.5	-1.6	-1.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2.1	1.8	1.5	1.6	1.3	1.6	1.7	1.8
건 설 업	3.7	1.6	-1.0	-2.4	-0.1	-2.8	-2.0	0.0	1.7	0.7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5	0.8	2.2	1.8	1.0	1.6	1.3	0.9	0.9	1.1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1.4	1.3	1.2	1.1	0.5	1.0	2.0	3.6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0	3.9	2.9	2.8	2.2	2.6	2.2	2.4	2.0	1.8
실업률 (계절조정, %)	3.7	2.9	2.7	2.6	2.6	2.6	2.8	2.4	2.6	2.5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10월 수출 5.1% 증가, 수입 9.7% 감소, 무역수지 16억 달러 흑자

○ 지난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5.1% 증가한 551억 달러, 수입이 9.7% 감소한 535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로는 자동차·일반기계·가전·선박·디스플레이 등에서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다,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가 둔화되는 한편, 지역별로는 중국·EU·CIS 등지를 제외한 다수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이 '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

- 수입은 전년동월비 낮은 국제가격 등으로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감소(-22.6%)하고, 석유제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감소폭이 둔화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96.1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5.0% 낮은 수준이고, 도입물량이 5.4%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이 약 0.1% 증가한 약 81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수 출	6,444 (25.7)	6,836 (6.1)	1,512 (-12.8)	1,558 (-12.0)	1,572 (-9.7)	542 (-6.0)	505 (-16.2)	520 (-8.1)	547 (-4.4)	551 (5.1)
수 입	6,151 (31.5)	7,314 (18.9)	1,740 (-2.2)	1,593 (-13.2)	1,507 (-21.6)	530 (-11.8)	487 (-25.4)	510 (-22.8)	510 (-16.5)	535 (-9.7)
무역수지	293	-478	-228	-35	65	12	18	10	37	16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자동차·선박·기계 등 수출 증가, 13대 품목중 6개 품목 수출 동반 증가

○ 반도체 : IT 수요 약세의 지속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확대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및 AI 서버용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등 수급 상황의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축소('22년 9월 이후 최고치)

- **자동차** : 북미·EU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국산 SUV·친환경차에 대한 견조한 수요와 함께 高단가의 전기차 신종 출시 등에 따른 국산차 수출·판매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22년 6월부터 16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중고차 판매량 감소에 따른 부품 수요 감소와 친환경차 수요 확대에 따른 내연기관용 부품 수요 약세 등으로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세
- **선박류** : 지난 '21년부터 수주받은 선박 물량의 생산·인도가 본격화되고, 수출단가에 '21년도의 선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
- **디스플레이** : LCD 생산의 감축에도 IT제품 및 자동차 분야 OLED 수요 확대, 스마트폰 및 TV 패널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고가형 모델 판매 비중의 확대와 고부가가치 부품 탑재 등에 따른 평균 단가 상승으로 수출 감소세가 한 자릿수로 제한적
- **철강** :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수주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데다, 단가 약세 및 수요 둔화 등으로 회복세가 제한되면서 수출이 소폭 감소 전환
- **섬유** : 아세안 소싱처로의 신규 주문 증가로 국산 섬유 소재의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미국 대형·중견 유통사의 실적 부진에 따른 재고조정 및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17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제품** : 업계 정기보수 종료 이후의 가동 재개 및 수출 확대와 사우디·러시아 등의 감산 연장으로 초과 수요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8개월 만에 증가
- **석유화학** : 정기보수 마무리 단계로 업계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의 경기 부진 지속과 글로벌 공급설비 과잉으로 수출이 17개월 연속 감소세
- **일반기계** : 주요 수출시장(북미·EU·아세안)에서의 인프라 투자사업 확대로 인한 기계 장비류 수요 증가와 신흥시장(중남미·중동)에서의 중장비 구매 수요 확대 및 현지 생산공장 신설 등으로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한국산 대형가전의 시장내 경쟁우위 지속과 주력 시장(미국)의 리모델링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주요 제조사들의 고강도 감산에 따른 수출물량 축소와 글로벌 SSD 시장의 낸드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1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감소세는 점차 둔화 양상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동차	24.2	16.4	43.9	48.9	17.1	58.3	15.0	28.7	9.4	19.8
자동차부품	22.2	2.4	-3.6	1.0	0.4	5.5	-0.5	5.9	-3.5	-3.7
선박류	16.4	-20.9	0.7	21.3	-4.0	98.9	-30.9	35.1	14.4	101.4
일반기계	4.6	2.0	-2.1	5.6	6.7	8.0	2.8	7.7	9.8	10.5
철강	36.9	5.7	-15.8	-5.7	-5.5	3.1	-10.2	-11.3	7.3	-0.7
석유화학	54.8	-1.4	-22.3	-24.3	-13.9	-22.2	-23.8	-11.4	-5.1	-3.4
석유제품	57.7	64.9	-0.5	-34.8	-27.3	-40.0	-39.3	-32.6	-6.1	18.0
섬유	14.0	-4.0	-15.2	-11.2	-11.8	-2.8	-15.4	-10.9	-8.5	-9.0
가전	24.0	-7.4	-8.5	-7.5	7.1	3.3	2.4	11.7	7.8	5.7
무선통신기기	45.9	-10.4	-13.4	-20.8	-8.4	-12.3	-15.4	-8.6	-3.6	-4.5
컴퓨터	24.7	-4.7	-61.9	-61.6	-48.1	-53.5	-33.4	-54.7	-53.9	-30.5
반도체	29.0	1.0	-40.0	-34.8	-22.6	-28.0	-33.6	-20.6	-13.6	-3.1
디스플레이	18.9	-1.1	-39.5	-16.5	1.2	-11.1	-4.6	4.1	4.0	15.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부록	수요위기를 넘어 공급위기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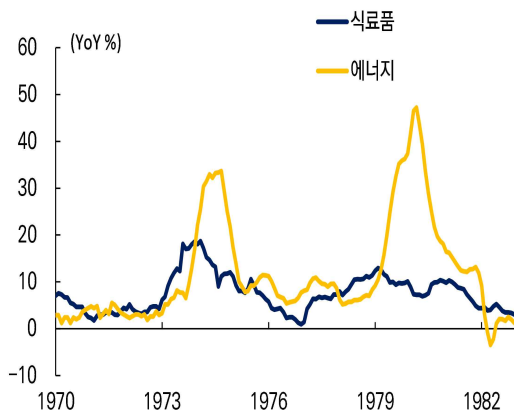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3년 11월)

- 코로나 확산 및 대봉쇄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를 대규모 재정·통화 부양책으로 대응하면서 직접적 충격이 억제되었으나, 화폐적·재정적 함정의 부각, 인플레이션 확대, 백신 민족주의와 공급망 충격 등 불안정한 흐름이 확산
-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경험에 기반한 잘못된 접근으로 인해 공급위기의 성격이 강한 현재 위기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한계점이 부상

□ 다시 주목되는 공급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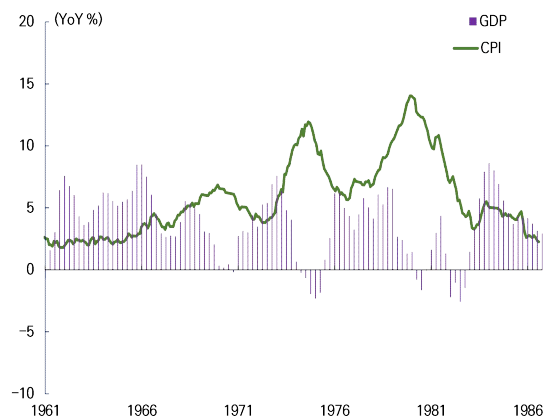
- 1970년대 오일쇼크는 외생적 공급충격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와 성장 정체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면서 케인지언 수요관리의 한계·부작용이 부각
 - 부정적 공급충격에 대하여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으로 대응 시, 경기침체는 방어할 수 있으나,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책 딜레마 야기
-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동시 충격을 설명하기 위한 공급충격 모형에 주목
 - 공급충격은 비용 상승 및 생산 차질을 통해서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의 동반 발생을 야기하는 동시에 구매력 감소 등 수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美 CPI 내 부문별 물가상승률 추이 〉



자료: Fred.

〈 美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추이 〉



자료: Fred.

- 과거 수요위기와 공급위기의 차별적 동학에 주목해 볼 때, 공급위기는 수요위기와 달리 역사적으로 혁신의 동력이자 세계화의 새로운 에너지로 작용
 - 코로나 위기 이전 세계경제의 대형위기라 할 수 있는 대공황과 금융위기는 수요위기, 오일쇼크나 19세기 중반 유럽위기 등은 공급위기로 구분이 가능
 - 수요위기 시에는 수요 부양에 역점을 두어 소득분배의 재조정 요구가 거센 반면, 공급위기 시에는 생산적 위기에 대응하여 자원배분의 재조정이 필요

- 또한 수요위기 이후에는 세계화가 후퇴 내지 정체하는 모습이 지배적이고, 공급위기도 초반에는 공급망 안보를 위해 보호주의, 통상마찰 등이 부각되나, 소통과 혁신의 새로운 에너지를 지향하면서 결과적으로 세계화를 더욱 진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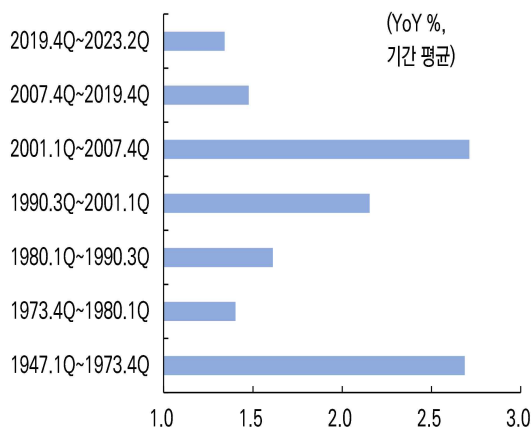
□ 복합충격의 취약성 위험

- 코로나 위기를 수요위기로 보아 과감한 재정·통화정책으로 대응하였으나, 수요침체는 제한적이고, 의료물자 공급 부족 및 원부자재 공급 차질 등이 발생
- 지난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원유 의존도 축소, 통화정책의 신뢰성 제고, 경제구조적 유연성 증대 등에 힘입어 공급충격의 영향력이 한동안 퇴조
- 그러나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재편, 통화정책의 제약 심화로 인해 공급충격의 취약성이 재부각되고, 공급충격이 다양한 경로로 수요충격으로 전환되는 등 공급위기와 수요위기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위험도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결론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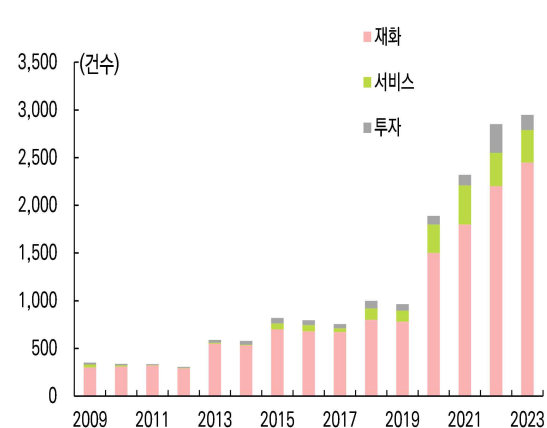
-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공급충격에 따른 취약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
- 공급위기는 본질적으로 생산성 둔화에 기반한 위기로써 코로나 이전의 ‘장기 정체’ 이슈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넘어서기 위한 공급혁신이 중요함
- 중소 개방경제국인 우리나라는 공급충격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우리나라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관계를 감안하여 프렌드쇼어링을 넘어선 능동적·다각적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중요
- 경제 안정 및 사회 통합 강화라는 차원에서 경제적 및 사회적 피해자나 취약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도 여전히 중요

〈 美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추이 〉






















































자료: US BLS.

〈 세계 교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



자료: Global Trade Alert.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11.27일)	(11.28일)	(11.29일)	(11.30일)	(12.1일)
	 11월 소비자신뢰지수  11월 소비자동향조사	 10월 무역수지(수)  11월 경제제임지수  23.3분기 실질GDP (수 정 치)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10월 산업생산(잠)  10월 소매판매(잠)  11월 소비자물가(예)  10월 실 업 률  10월 개인소비  10월 산업활동동향  금융통화위원회	 10월 실 업 률  11월 ISM 제조업지수  11월 수출입통계
(12.4일)	(12.5일)	(12.6일)	(12.7일)	(12.8일)
	 11월 ISM 서비스업지수  11월 소비자물가  23.3분기 실질GDP (잠 정 치)	 10월 소매판매  10월 무역수지	 10월 경기선행지수 (잠 정 치)  23.3분기 실질GDP (확 정 치)  11월 수출입통계	 23.3분기 실질GDP (수 정 치)  11월 고용보고서
				(12.9일)
				 11월 소비자물가
(12.11일)	(12.12일)	(12.13일)	(12.14일)	(12.15일)
	 11월 소비자물가  연준 FOMC(12.13일)	 10월 산업생산  11월 생산자물가  11월 고용동향	 10월 기계수주  10월 산업생산(수)  ECB 통화정책회의  11월 소매판매	 11월 산업생산  11월 소매판매  11월 고정투자  10월 소매판매(수)  10월 수출입통계  11월 산업생산
(12.18일)	(12.19일)	(12.20일)	(12.21일)	(12.22일)
 BOJ 통화정책회의	 11월 소비자물가(수)	 11월 무역수지(잠)	 11월 경기선행지수  23.3분기 실질GDP (확 정 치)  11월 생산자물가	 11월 소비자물가  11월 내구재수주(잠)  11월 개인소비